

# 훼손되고 사라지고... 4·3유적 보호 시급

### 830곳 중 등록문화재는 수악주둔소 1곳에 그쳐 개발바람 속 훼손돼도 법적 장치 없어 속수무책 "실질 조치 담보할 수 있도록 도 조례 보완해야"

4·3특별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로 희생자 배상 등 해묵은 현안의 해결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수백 곳에 이르는 4·3유적지 보존·정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내 4·3유적은 2018~2019년 조사를 통해 모두 83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3~2004년 조사 당시 597곳에 비해 233곳 늘어난 수치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제주도 차원의 지정문화재는 항로유산이든 법적 보호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유일한 국가 등록문화재인 제주4·3수악주둔소(제716호)도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은 미흡하다. 2018년 6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수악주둔소는 4·3당시 경찰이 주둔하면서 토벌에 나섰던 이종구조의 석성이다. 4·3사건과 관련된 유적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처음 등록됐다 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그렇지만 수악주둔소는 성담이 지

속적으로 허물어지는 등 훼손 우려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4·3유적 유일의 등록문화재 입에도 불구하고 활용 프로그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등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계적인 보존·정비와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다.

뿐만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불어닥친 개발 광풍으로 4·3유적은 아예 사라져버리거나 훼손·멸실 위험에 처해있다. 대표적으로 한림읍 뒷골장성은 구축 당시 길이가 10k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해서 속칭 한림장성이라 불리기도 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상당 구간이 남아있었으나 지금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법적 보호장치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다.

제주도는 2009년 5월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유적을 훼손하거나 파괴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유지에 있는 4·3유적의 경우 보존하기가 어려운 것



4·3유적 중 유일하게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수악주둔소. 사진=한라일보 DB

이 사실이다.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조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4·3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 활용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유적의 성격과 중요도 등을 고려한 국가 등록문화재의 추가 확대 등록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끈을 동처럼 잃어버린 마을과 4·3성, 주둔지 등 중요 유적도 상당 수 분포한

다. 이에따라 중요 유적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가 확대해 나가기 위한 학술적 뒷받침과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관련 오승국 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은 "이제는 현장에 산재해 있는 4·3유적의 제도적 보호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한 평화 프로그램과 평화 투어리즘의 대중적 확산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일 금요일 음 2월 21일 (13물)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30%	30%
30%	성산 30%	30%
30%	고산 30%	30%
30%	서귀포 30%	30%

### 주간예보

내일	흐리고 비	16/22℃
모레	흐리고 비	13/15℃

### 흐리고 비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 낮 최고기온은 19~21℃로 전망된다.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해돋이 06:21	달뜨기 :
해질미 18:55	달지기 09:27
물때	간조 08:19
	20:19

식중독지수 : 관심  
감기가능지수 : 높음

###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해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 "4·3특별법 속 진상규명 사업 외면 유감"

### 4·3도민연대 '해원방사탐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하는 '4·3해원방사탐제(사진)'가 1일 제주시 신산공원에 위치한 '4·3해원방사탐제'에서 열렸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해원방사탐제에는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장과 강성민·강철남·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과보고에 나선 양동운 도민연대 대표는 "정부는 지난 3월 23일 4·3

특별법 전면개정을 공표했다. 4·3희생자에 대해 용역을 거쳐 위자료를 지급하고 군사재판 무효화 주장은 국가가 일괄 재심 조치하는 법으로 개정됐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장 핵심적 과제인 4·3진상규명사업을 외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 조항인 '4·3진상조사단' 설치 조항이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당과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종전 처럼 4·3평화재단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해버린 것이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6일부터 영어듣기능력평가

올해 첫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가 6일 중학교 1학년년을 시작으로 15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학년도 제1회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는 6일(1학년), 8일(2학년), 9일(3학년)에, 고등학교는 13일(1학년), 14일(2학년), 15일(3학년) 실시된다.

듣기평가 방송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20분 내외로 EBS FM 라디오(제주 107.3Mhz, 서귀포 104.9Mhz)를 통해 전국에 송출된다.

영어듣기능력평가 듣기 대본, 문항, 정답, 음원파일은 시험평가 당일 오후 7시 이후 EBS 중학 사이트와 EBS 고교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오은지기자 eojh@ihalla.com

## 해군기지 진입도로 땅만 파면 유물

### 4년 전 발주 불구 유물 발굴로 공정 52% 그쳐 신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수백여 점 발견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신석기와 고려·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교통 불편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발주됐다. 당시 발표를 보면 국비 214억원을 투입, 강정동 1132번지 도로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까지 남북 방향으로 2.08km에 이르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한다. 준공 목표는 발주 2년 후인 2019년이었다. 하지만 개설공사 전 이뤄지는 시굴·발굴조사에서 다양한 시대의 유

물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현재까지 개설공사의 공정은 52%에 머무는 상황이다. 현재도 시굴조사 대상 면적 8만5567㎡ 가운데 2568㎡가 시굴조사, 4577㎡는 시굴조사 다음단계인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해 2월 14일에는 (재)경상문화재연구원 이 발굴한 청자 저부편 등 20점이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로 공고된 바 있다. 공고된 유물을 시대별로 보면 고려시대가 12점(청자 저부편 8점·청자 구연부편 2점·기와편 1점·도기편 1점)으로 가장 많았고, 신석기시대 5점(모두 토기편), 조선시대 3점(백자

저부편 2점·백자편 1점) 순이었다.

아울러 아직 최종 보고서 나오지 않았지만,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한 유물 규모가 500~600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물의 시대 역시 신석기와 청동기, 철기시대 등 앞서 경상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시대와 비슷하다.

도내 역사학계 관계자는 "제주에서 신석기부터 철기시대까지의 유물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다만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한 유물의 경우는 출토유물 공고가 이뤄진 뒤에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내로는 시굴·발굴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제38회 제주유채꽃축제

THE 38TH JEJU CANOLA FLOWER FESTIVAL

2021. 4. 6.(화) ~ 4. 8.(목)

축제기간 / 현장 대면 프로그램 없음 (서귀포시 공식 SNS 실시간 송출)

제23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경기대회 온라인접수(~4. 9.까지) [jejusta.or.kr](http://jejusta.or.kr)  
문의 064-739-7201

※올해 축제는 집에서 안전하게 영상으로 만나요~

프로그램 (비대면)	11:00 ~ 14:00	•가시리마을 투어 (지역명소 탐방/온라인 간접체험)
일차별 동일	14:00 ~ 17:00	•엔택트 버스킹 (온라인 생중계)

1. 유채꽃광장 2.갑마장 3. 조랑말체험공원 4. 유채꽃포차

- 4. 6(화) / 골든패밀리, 양대철,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서귀포지회, 이미소  
- 4. 7(수) / 신기영, 레옹,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서귀포지회, 생이소리  
- 4. 8(목) / 류준영, 김동준,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서귀포지회, DJ 창환

※ 향후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전 일정 변동(방송, 축소, 취소 등) 될 수 있음

온라인 생중계: [YouTube](https://www.youtube.com/c/ChannelSeogwipo) [Facebook](https://www.facebook.com/Seogwiposechoeng/) [Instagram](https://www.instagram.com/seogwipoofficial/)

유채꽃 광장  
유채꽃광장 순간 최대 수용 인원은 350명으로 제한

행사처(관계자) P  
장애인 / 임산부 P  
교통관리

주(정)차 관리, 주차장, 주차차 관리